

## 남녀 청소년의 가족체계유형과 학교생활적응 및 행동문제의 관련성

김신애\*·이형실\*\*·임수경\*\*\*

월촌중학교\*·중앙대학교 가정교육과\*\*·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정교육전공\*\*\*

---

### Relations of Family System Types, School Adjustment, and Behavior Problems in Adolescents

Kim, Shin-Ae\*·Lee, Hyong-Sil\*\*·Lim, Soo-Kyong\*\*\*

*Wol-chon Middle School\**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Doctorial student,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promoting interests and concerns about adolescents' behavior problems and inducing efforts for various preventive and therapeutic solutions by examining the relations of adolescents' family system types, school adjustment, and behavior problem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444 middle school students who reside in Seoul and 1,382(male adolescents 747, female adolescents 635)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emale adolescents were experiencing more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han male adolescents. The gender difference must be considered in the prevention and solution of the behavior problems. Second, the level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in the maladjusted family type was the lowest, and the level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in the adjusted family type was the highest. Improving the level of the family functioning can effectively increase the level of the school life the most behavior problems, and those of the adjusted family type were adaptability. Third, adolescents of the maladjusted family type were experiencing the most behavior problems, and those of the adjusted family type were experiencing the least behavior problems. Fourth, i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was in the high level, adolescents were experiencing the lower behavior problems. Therefore, developing educational and counseling programs that can constantly observe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and improve maladjustment problems is

---

1) 교신저자: Lee, Hyong-sil, 221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 02-820-5397 Fax: 02-812-5311 E-mail: hslee97@hotmail.com

2) 이 논문은 2007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necessary for decreasing adolescents' behavior problems. Fifth,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and behavior problems in all family system types. Specially,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male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female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were higher in the maladjusted family type and middle-adjusted family than in the adjusted family.

Key Words: 청소년(Adolescent), 가족체계유형(Family System Types), 학교생활적응(School Adjustment), 행동문제(Behavior Problems), 외현화 행동문제(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내재화 행동문제(Internizing Behavior Problems)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발달상의 과도기이다. 청소년들이 이 시기의 신체적, 성적, 인지적, 정서적인 급격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행동적, 정서적 문제인 행동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정옥분, 2005). 청소년의 행동문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경험하는 각종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홍강의·홍경자, 1986). 행동문제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적, 정서적 부적응의 결과임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이 다각적으로 요구되는 청소년 시기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행동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큰 시기라 할 수 있다(민하영·이윤주·이영미, 2004).

행동문제는 종종 문제행동의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된다. 문제행동은 부적응 행동의 실태와 양상에 관심을 갖는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반면 부적응 행동의 발생 원인, 환경적 요인에 관심을 갖는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 행동문제이다. 그래서 행동의 발생 원인에 관심을 갖는 심리학, 정신의학 등의 연구에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행동적, 심리적 적응 문제를 주로 행동문제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문제행동의 분류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이 중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상의 부적응 문제인 외현화 행동문제와 정

서적인 측면의 부적응 문제인 내재화 행동문제로 분류되는 문제행동을 특별히 행동문제라고 한다.

최근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와 같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청소년의 외현화 행동문제는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대학병원과 서울시 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가 6~17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7.5%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내재화 행동문제인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안용성, 2006). 이미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동문제는 성격적 장애를 가진 일부의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수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김문정, 2003). 이러한 행동문제는 그대로 방치될 경우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심각한 성격적 문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이승신 외 7인, 2001; 최경민·한성희, 1997; 황혜정, 1996). 더구나 청소년기의 행동문제가 지속되면 청년기와 성인기의 대인관계, 직업생활 등 여러 영역에서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행동문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성별에 따른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문제의 차이는 남녀의 사회적 역할 차이 및 사회화의 차이, 즉 성역할에서 비롯된다(송명자, 1995). 즉, 남자의 경우 행동에 대한 전통적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신체적, 물리적으로 표출되는 공격성 등의 외현화 행동문제가 여자보다 더 빈번히 나타난다(Liu & Kaplan, 1999; 서찬란, 2005 재인용).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자는 밖으로 표출되는 외현화 행동문제보다는 우울, 불안, 신경증적 장애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남자보다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다.

남녀 청소년의 행동문제는 개인에게 가장 밀접한 환경

인 가족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유아기와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기동안 감소되기는 하지만, 이 시기에도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여전히 중요하다. 권지은과 이소희(1999)는 메타분석을 통하여 가족의 구조적 결손 변인 보다는 가족의 기능적인 변인이 청소년의 부적응을 예측하는 데 더 중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가족의 심리적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특히 가족체계이론에서는 행동문제를 포함하는 개인의 부적응 행동이 기능적이지 않은 가족관계에서 기인한다고 본다(박현진, 1999).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가족은 개인에 대하여 다른 환경에 의해 대처될 수 없는 세가지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가족은 개인에게 가족원간의 물리적 가까움은 물론 감정적, 정서적 가까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데, 이를 가족의 응집성이라고 한다. 둘째, 가족관계를 통해 개인이 속한 집단의 힘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역할관계가 어떻게 발달되며, 관계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를 가족의 적응성이라고 한다. 셋째, 개인은 가족을 통하여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방식을 습득한다(Olson, Russel, & Sprenkle, 1979).

한편 가정환경 뿐만 아니라 학교 환경도 남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은 비교적 성인 사회와 단절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청소년 특유의 생활권을 형성한다(한석웅, 2000). 따라서 청소년기에 청소년과 부모의 상호작용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나, 청소년과 학교, 교사 및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은 급격히 증가한다. 학교생활적응의 성패는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수주(2002)는 학생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공통적인 원인이 친구문제, 교사문제, 학업문제 등의 학교생활적응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미정(2003)은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적응으로 인해 올바른 가치관의 내면화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인성 형성이 이루어지고 행동문제 발생의 가능성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청소년 행동문제에 대한 폭넓고도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행동문제가 개

인과 가족, 사회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 특히 교사와 학부모의 청소년 행동문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특히, 가족체계유형과 학교생활적응, 청소년 행동문제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청소년 생활지도를 효과적으로 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의 가족체계유형과 학교생활적응, 행동문제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행동문제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고,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체계유형과 학교생활적응에 따라 행동문제에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 행동문제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 1) 청소년의 행동문제는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남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3)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남녀 청소년의 행동문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4) 학교생활적응에 따라 남녀 청소년의 행동문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5) 가족체계유형별로 학교생활적응과 남녀 청소년의 행동문제의 관계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행동문제

#### 1) 행동문제

행동문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행동문제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정의된다. 홍강의, 홍경자(1986)는 행동문제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하였으며, 정문자(1988)는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상적인 적응 능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행동으로, 일반 부모나 교사의 일상적 지도범위를 벗어나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또한, 전명희와 양혜원(2001)은 특정유형의 행동이 그 빈도나 정도에 있어서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행동문제라고 정의하였다.

둘째, 행동문제의 발생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문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응 행동으로 규정된다. 홍강의·홍경자(1986)는 행동문제가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 벗어난 행동이라고 정의함과 동시에,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생활해가는 가운데 여러 환경요인들로 인해 유발된 행동적, 심리적 부적응의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또, 성영혜(1992)는 행동문제를 아동과 가정, 학교, 이웃 등으로 구성된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장애가 있어 발생하는 것으로, 심리 및 사회적 원인으로 형성된 복합적인 문제라고 정의하였고, 양현아(2003)도 행동문제를 가족환경, 가족외적 환경 및 개인적 특성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적, 정서적 부적응의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행동문제는 외현화 행동문제와 내재화 행동문제로 나누어진다. 외현화 행동문제란 타인에 대한 부정적 행위나 행동이고(Eric & Russell, 1996), 공격적인 행동, 싸움, 비행 등 외현화되고 과소 통제된 행동을 의미한다(이성녀, 2005). 내재화 행동문제란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행동문제로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 상태를 의미하며(Eric

& Russell, 1996)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 신체 증상, 우울/불안 등 내재화되고 과잉 통제된 행동을 의미한다(이성녀, 2005).

#### 2) 성별과 행동문제

청소년은 성별에 따라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문제가 다르게 나타난다(이성녀, 2005). 김유경(2004)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문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내재화 행동문제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시설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은경과 오수성(2006)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문제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의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행동문제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적고 다양한 조건에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비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행동문제의 차이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 2. 가족체계유형

#### 1) 가족체계유형

가족체계이론에서는 가족을 외부로부터 오는 변화요구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순응하는 개방체계로 본다. 가족기능성은 이러한 가족체계의 가정 밖의 환경 및 가족 하위체계들 간 상호작용의 건강성 및 기능을 뜻한다(김지영, 2003).

가족기능성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차원으로 구성된다.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이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emotional bonding)으로서, 가족 구성원들끼리 분리 또는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 가족응집성의 내용은 정서적 유대, 가족의 경계, 연합, 시간, 공간, 친구, 의사결정, 흥미와 오락 등으로 분석될 수 있다

(Olson, Russell, & Sprenkle, 1983). Kathleen과 Brommel (1986)은 가족응집성을 가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애정적인 유대와 한 개인이 가족체계 내에서 경험하는 개인적인 자율성의 정도라고 하였고, 전귀연과 최보가(1995)는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의존성, 심리적 유대라고 정의하였다. 가족적응성(family adaptability)이란 상황적으로 또는 발달 단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가족체계가 권력구조, 역할관계 및 관계의 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서(Olson & Barnes, 1985), 가족구성원들이 가족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가족적응성은 의견주장, 통제, 부모의 훈육, 협상유형, 역할관계, 관계규칙 등으로 분석된다(이숙현·민혜영, 1992).

Thomas와 Olson(1993)은 가족체계를 1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복합순환모델(Circumplex Model)이라 한다. 이 모델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차원이 가족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상호조합을 이루는 유형론적 모델이다(전귀연·최보가, 1995).

가족체계유형은 극단가족(Extreme family), 중간가족(Mid-range family), 균형가족(Balanced family)으로 분류되는데, 극단가족(Extreme family)은 가족응집성 차원이 밀착 또는 격리 수준에 위치하며 동시에 적응성 차원에서는 혼돈 또는 경직 수준에 위치하는 가족유형이다. 중간가족(Mid-range family)은 가족의 응집성 차원이 연결 또는 분리수준에 위치하면서 적응성 차원에서는 혼돈 또는 경직 수준에 위치하는 가족이거나, 가족의 응집성 차원이 격리, 밀착 수준이면서 적응성 차원이 유연, 구조적인 수준에 위치하는 가족유형이다. 균형가족(Balanced family)은 응집성 차원은 연결 또는 분리수준, 적응성 차원은 유연, 구조적인 수준에 위치하는 가족이다.

전귀연·최보가(1995)는 복합순환모델의 가족체계유형 분류방법을 새롭게 하여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모두 낮은 가족을 역기능적인 부적응가족,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모두 높은 가족을 기능적인 적응가족이라고 하였다. 즉, Olson(1991)의 가족기능성을 측정하는 FACESIII 척도의 문항들이 역기능-기능-역기능의 곡선적인 측정치가 되도록 의도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역기능-기능의 직선적인 측정치를 내기 쉽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에 따라 가족체계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 2) 가족체계유형과 행동문제

행동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가족 관련 요인은 가족체계와 그 하위체계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기능성이다. 윤찬정(1994)에 따르면 가족이 기능을 잘 할수록 각 개인의 인성 특성이 비교적 더 활동적이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사회성이 풍부하며, 성취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신경증적, 정신장애적, 반사회적 경향이 낮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임용우(1984)의 연구에서 청소년 중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집단의 가족은 극단형의 가족체계유형인 경우가 많았다. 이와 유사하게 국외 연구에서도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 집단의 가족은 응집성 수준이 밀착 또는 격리에, 적응성은 혼돈 수준에 있었다(Bell & Bell, 1982; Rodick, Henggler, & Hanson, 1986). 한편 청소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관한 전귀연·최보가(1995)와 Handel(1965)의 연구를 살펴보면, 적응가족일수록 청소년은 불안과 우울을 더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가족기능성이 높을수록, 즉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이 높을수록 남녀 청소년의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학교생활적응

### 1)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소혜(1995)는 학교생활적응을 학생들이 교과활동, 특별활동, 기타 행사활동 중에서 자기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교사 및 학생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음으로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종연·이재신(2000)은 학교생활적응을 학교환경 속에서 교사, 친구들과의 관계나 교과활동, 행사 등에 만족하며, 적응을 잘

하여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인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학교와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학교생활에서의 조화와 만족감이 초점을 두고 학교생활적응을 정의하였다.

한편, 학생의 능동적 참여와 적응에 초점을 두고 학교생활적응을 정의한 연구도 있다. 김용래(1993)에 의하면 학교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환경적 제반 여건에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및 신념을 길러주는 중요한 역할수행 기관이며, 학교의 여건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학교수업 활동, 학교에서의 생활, 학교에서의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현장의 환경 등인데, 이는 학습자가 학교에서 적응해야 하는 중요한 영역들이라고 하였다. 적응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으로 전제되므로 학교생활적응은 학습자가 학교상황, 즉 학교수업활동, 학교에서의 생활, 학교 내 친구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의 환경 등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이다.

학교생활적응은 다양한 하위영역들로 분류되어 연구되는데, 김용래(1993)는 다양한 측면의 학교생활적응을 학생 자신의 활동 측면과,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관계적 측면을 고려한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라는 환경체계에서의 적응을 학교교사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생활적응, 학교환경적응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학교교사적응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며, 이에 수반되는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해 가는 정도를 뜻한다. 학교친구적응이란 학교에서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제반의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적절히 조절하며, 교우간에 유발되는 각종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해 가는 정도를 뜻한다. 학교수업적응은 학교의 수업시간에 자신의 요구를 적절히 조절하며, 수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해 가는 정도이다.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은 교내의 규칙, 질서, 각종 행사, 시설물 활용, 준비물 지참, 교내 홍보, 게시물 확인 등 교내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파악하면서, 학습자 개인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해 가는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학교환경적응이란 학습자가 학교환경을 바르게 수용하여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학교환경에서 수반되는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해 가는 정도를 말한다(김용래, 1993).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은 학교생활에서의 조화와 인간관계에서의 만족감, 학생의 능동적 참여활동을 포함하는 적응행동으로 정의된다.

## 2) 학교생활적응과 행동문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적응과 행동문제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살펴보면, 김인숙·이경남(2004)은 청소년이 친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공격성, 과다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가 적게 표출되고,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적 행동문제가 감소된다고 하였다. 문은영과 윤진(1994)의 연구에서 청소년 중 친구들을 배척하는 집단은 비행경향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경험하였으며, 친구로부터 무시되는 집단은 고독감과 사회적 불안과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를 많이 경험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를 살펴보면, 이경주(1997)는 여자 중학생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친구지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노숙영(1998)은 남자 중학생이 교사관계와 수업태도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를 많이 나타내고, 여자 중학생은 교우관계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위축, 사회적 미성숙 문제 등 내재화 행동문제를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성공적인 학교생활이 청소년의 행동문제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내 사회관계 외의 하위영역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학교생활적응과 행동문제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인 관계, 행동적 측면, 환경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학교생활적응에 따라 나타나는 남녀 청소년 행동문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3) 가족체계유형과 학교생활적응

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의 특성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해령(2000)은 가족의 응집성과 의사소통 요인이 학교생활적응 중 학교규범준수 및 성격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오치선과 오운선(2001)은 가족응집성으로 본 가족체계유형이 연결 유형인 집단, 그리고 가족적응성이 유연 유형인 가족체계유형 집단의 청소년의 교사와의 관계와 교우관계가 가장 원만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보면, 가족기능성에 따른 가족체계유형과 학교생활적응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적응가족 집단의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를 위한 자료조사는 2006년 12월 15일부터 2006년 12월 22일까지 서울 지역의 남녀공학 11개 학교에서 이루어졌다. 서울시의 총 11개 지역교육청에서 각 1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총 11개 학교에서 전체 1,4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사전에 담임교사의 설문조사에 대한 양해를 구한 후, 연구자를 포함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성격과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은 5명의 검사자들이 각 학교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이 중 부실 기재된 62부를 제외하고 총 1,382부(남학생 747명, 여학생 63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N(%)
학 년	2학년	682(49.3)
	3학년	700(50.7)
성 별	남자	747(54.1)
	여자	635(45.9)
출생순위	외동	132( 9.6)
	첫째	544(39.4)
	중간	81( 5.9)
	막내	605(43.8)
	무응답	20( 1.4)
용 돈	1만원 미만	168(12.2)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451(32.6)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441(31.9)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	190(13.7)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69( 5.0)
	10만원 이상	56( 4.1)
	무응답	7( 0.5)
가계 소득	100만원 미만	45( 3.3)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93(14.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6(22.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86(20.7)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17(15.7)
	500만원 이상	272(19.7)
	무응답	63( 4.6)

## 2. 조사 도구

행동문제 척도는 4-18세 아동과 청소년들의 행동문제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인 Achenbach(1993)의 CBCL (Child Behavior Checklist)과 YSR(Youth Self Report)을 하은혜,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이수정(1995, 1998)이 12~17세의 한국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연구한 후 번안하고 표준화한 K-YSR(Korean-Youth Self Report)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K-YSR은 총 119문항으로 사회능력 척도(Social Competence Scale)와 행동문제증후군 척도(Behavior Problem Scale)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재화 행동문제, 외현화 행동문제, 총 행동문제로 구분하여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문제를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격적인 행동, 싸움, 비행 등 외현화되고 과소 통제된 행동을 의미하는 외현화 행동문제를 소극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 신체 증상, 우울/불안 등 내재화되고 과잉 통제된 행동인 내재화 행동문제로 구분하여, 내재화 행동문제에서는 우울/불안, 외현화 행동문제에서는 공격성으로 측정내용을 제한하였다. 외현화 행동문제 영역의 척도는 14문항, 내재화 행동문제 영역의 척도는 15문항,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응답점수는 29점에서 145점까지 분포한다. 행동문제 척도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사 결과, 외현화 행동문제 영역(공격성)의 Chronbach's  $\alpha$  값은 .86, 내재화 행동문제 영역(우울/불안)의 Chronbach's  $\alpha$  값은 .88로 나타났다.

가족기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Olson, Porter, Lavee(1985)에 의해 개발된 것을 김윤희(1990), 전귀연(1993) 등이 번안한 FACESIII(Family Adaptability Cohension Evaluation Scale III)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한 10개 문항, 가족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한 10개 문항인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사 결과, 가족응집성의 Chronbach's  $\alpha$  값은 .87, 가족적응성의 Chronbach's  $\alpha$  값은 .77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김용래(1993)가

개발한 검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교교사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생활적응, 학교환경적응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총 문항에 대한 응답점수는 24점에서 120점까지 분포한다. 학교생활적응 척도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사 결과, 학교교사적응 영역의 Chronbach's  $\alpha$  값은 .83, 학교친구적응 영역의 Chronbach's  $\alpha$  값은 .61, 학교수업적응 영역의 Chronbach's  $\alpha$  값은 .77, 학교생활적응 영역의 Chronbach's  $\alpha$  값은 .72, 학교환경적응 영역의 Chronbach's  $\alpha$  값은 .72로 나타났다.

##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경향과 행동문제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청소년 행동문제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행동문제의 차이, 학교생활적응에 따른 행동문제의 차이를 각각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가족체계유형별 학교생활적응과 청소년 행동문제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행동문제의 차이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표 2), 외현화 행동문제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표 2> 성별에 따른 청소년 행동문제의 차이

요 인	전 체			남			여			t
	N	M	SD	N	M	SD	N	M	SD	
의현화 행동문제	1,382	31.27	8.48	747	31.67	8.72	635	30.80	8.18	1.91
내재화 행동문제	1,382	34.11	10.51	747	33.00	10.15	635	35.42	10.78	-4.28***

\*\*\*p<.001

내재화 행동문제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t=-4.28, p<.001$ ), 여자 청소년의 내재화 행동문제 수준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내재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2, 3학년층을 대상으로 한 김유경(2004)의 연구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성녀(2005)의 연구에서 보고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내재화 행동문제에 더 취약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2.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남녀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1) 가족체계유형 분류

<표 3>에 제시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로 ‘평균점수±표준편차’ 값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표 4>의 점수범위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표 5>와 같이 가족체계유형을 적응가족, 중간가족, 부적응가족의 3수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3>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남		여		전체	
	M	SD	M	SD	M	SD
가족응집성	32.56	7.03	32.94	7.36	32.73	7.18
가족적응성	31.06	6.00	31.97	6.12	31.48	6.07

<표 4>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 수준별 점수범위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전체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범 위	10 - 32	33 - 50	10 - 31	32 - 50	20 - 100
사 례 수	693	689	693	689	1382

<표 5> 가족체계유형 분류

		가족응집성	
		낮음	높음
가족적응성	높음	중간가족 N = 162(11.72%)	적응가족 N = 527(38.13%)
	낮음	부적응가족 N = 531(38.42%)	중간가족 N = 162(11.72%)

<표 6>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N	학교생활적응		
			M	SD	F
전체	적응가족	527	77.52 <sup>a</sup>	13.10	129.99***
	중간가족	324	71.15 <sup>b,c</sup>	10.84	
	부적응가족	531	65.36 <sup>b,d</sup>	12.22	
남	적응가족	261	78.20 <sup>a</sup>	13.70	74.01***
	중간가족	181	70.65 <sup>b,c</sup>	11.28	
	부적응가족	305	65.29 <sup>b,d</sup>	12.35	
여	적응가족	266	76.84 <sup>a</sup>	12.48	56.32***
	중간가족	143	71.78 <sup>b,c</sup>	10.27	
	부적응가족	226	65.45 <sup>b,d</sup>	12.07	

\*\*\*p<.001

2)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남녀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남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74.01, p<.001). 여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56.32, p<.001). 이러한 결과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의 경우에서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남녀 청소년 모두 적응가족 집단에서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으며, 부적응가족 집단에서 학교생활적

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기능적인 가족체계의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도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남녀 청소년 외현화 행동문제의 차이

1)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남녀 청소년 외현화 행동문제의 차이

남자 청소년의 외현화 행동문제가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

<표 7>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외현화 행동문제의 차이

		N	외현화 행동문제		
			M	SD	F
전체	적응가족	527	29.85 <sup>a</sup>	8.56	20.99***
	중간가족	324	30.62 <sup>c</sup>	7.90	
	부적응가족	531	33.08 <sup>b,d</sup>	8.43	
남	적응가족	261	30.03 <sup>a</sup>	8.61	10.16***
	중간가족	181	31.32 <sup>c</sup>	8.55	
	부적응가족	305	33.28 <sup>b,d</sup>	8.66	
여	적응가족	266	29.67 <sup>a</sup>	8.53	10.92***
	중간가족	143	29.73 <sup>c</sup>	6.93	
	부적응가족	226	32.81 <sup>b,d</sup>	8.13	

\*\*\*p<.001

<표 8>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내재화 행동문제의 차이

		N	내재화 행동문제		
			M	SD	F
전체	적응가족	527	31.20 <sup>a</sup>	10.24	38.82***
	중간가족	324	34.58 <sup>b,c</sup>	9.84	
	부적응가족	531	36.71 <sup>b,d</sup>	10.45	
남	적응가족	261	29.75 <sup>a</sup>	9.77	22.67***
	중간가족	181	33.93 <sup>b</sup>	9.68	
	부적응가족	305	35.22 <sup>b</sup>	10.06	
여	적응가족	266	32.62 <sup>a</sup>	10.50	20.81***
	중간가족	143	35.41 <sup>b,c</sup>	10.02	
	부적응가족	226	38.73 <sup>b,d</sup>	10.66	

\*\*\*p<.001

과(표 7),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0.16, p<.001). 여자 청소년의 경우 일원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0.92, p<.001). 따라서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외현화 행동문제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남녀 청소년 내재화 행동문제의 차이

남자 청소년의 내재화 행동문제가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

과(표 8),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2.67, p<.001). 여자 청소년의 경우 일원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0.81, p<.001). 따라서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내재화 행동문제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족체계가 기능적이지 못한 경우 청소년의 행동 상 부적응 문제인 외현화 행동문제와 정서적인 측면의 부적응 문제인 내재화 행동문제 모두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학교생활적응에 따른 외현화 행동문제의 차이

		N	외현화 행동문제		
			M	SD	F
전체	상	215	27.80 <sup>a</sup>	7.93	46.24***
	중	974	31.17 <sup>b,c</sup>	7.96	
	하	193	35.61 <sup>b,d</sup>	9.69	
남	상	112	28.33 <sup>a</sup>	8.54	27.35***
	중	528	31.38 <sup>b,c</sup>	7.97	
	하	107	36.59 <sup>b,d</sup>	10.32	
여	상	103	27.21 <sup>a</sup>	7.20	19.34***
	중	446	30.93 <sup>b,c</sup>	7.95	
	하	86	34.40 <sup>b,d</sup>	8.76	

\*\*\*p<.001

4. 학교생활적응에 따른 남녀 청소년 행동문제의 차이

1) 학교생활적응에 따른 남녀 청소년 외현화 행동문제의 차이

학교생활적응에 따라 남자 청소년의 외현화 행동문제가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9),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7.35, p<.001). 여자 청소년의 경우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9.34, p<.001).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에 따른 외현화 행동문제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청소년 모두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외현화 행동문제를 적게 경험하며,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생활적응에 따른 남녀 청소년 내재화 행동문제의 차이

남자 청소년의 내재화 행동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10),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1.15, p<.001).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내재화 행동문제가 학교생활

적응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7.20, p<.001). 이러한 결과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의 경우에서 학교생활적응에 따라 내재화 행동문제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남녀 청소년 모두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내재화 행동문제를 적게 경험하며,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내재화 행동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 남녀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가족체계유형별 학교생활적응과 남녀 청소년 행동문제의 관련성

가족체계유형별로 남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행동문제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적응가족 집단에서 남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외현화 행동문제 및 내재화 행동문제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가족 집단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적응과 외현화 행동문제, 내재화 행동문제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적응가족 집단의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즉, 적응가족 집단의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학교생

<표 10> 학교생활적응에 따른 내재화 행동문제의 차이

		N	내재화 행동문제		
			M	SD	F
전체	상	215	29.60 <sup>a</sup>	9.27	45.81***
	중	974	34.09 <sup>b,c</sup>	9.90	
	하	193	39.26 <sup>b,d</sup>	12.33	
남	상	112	27.88 <sup>a</sup>	9.29	31.15***
	중	528	33.01 <sup>b,c</sup>	9.35	
	하	107	38.29 <sup>b,d</sup>	12.01	
여	상	103	31.47 <sup>a</sup>	8.93	17.20***
	중	446	35.37 <sup>b,c</sup>	10.39	
	하	86	40.47 <sup>b,d</sup>	12.69	

\*\*\*p<.001

<표 11> 가족체계유형별 학교생활적응과 행동문제 간 상관관계

		학교생활적응		
		전체	남	여
적응 가족	외현화 행동문제	- .24***	- .21**	- .28***
	내재화 행동문제	- .19***	- .23***	- .14*
중간 가족	외현화 행동문제	- .34***	- .33***	- .35***
	내재화 행동문제	- .28***	- .26***	- .33***
부적응 가족	외현화 행동문제	- .31***	- .31***	- .30***
	내재화 행동문제	- .26***	- .20**	- .35***

\*p<.05, \*\*p<.01, \*\*\*p<.001

활적응과 외현화 행동문제 간에, 그리고 학교생활적응과 내재화 행동문제 간에 부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가족 집단에서는 남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외현화 행동문제 및 내재화 행동문제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가족 집단에서의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적응과 외현화 행동문제, 내재화 행동문제 간의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중간가족 집단의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즉, 중간가족 집단의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학교생활적응과 외현화 행동문제 간에, 그리고 학교생활적응과 내재화 행동문제 간에 부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가족 집단에서 남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외현화 행동문제 및 내재화 행동문제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가족 집단에 속하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적응과 외현화 행동문제, 내재화 행동문제 간의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적응가족 집단에 속하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즉, 부적응가족 집단의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학교생활적응과 외현화 행동문제 간에, 그리고 학교생활적응과 내재화 행동문제 간에 부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가족유형별 학교생활적응과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문제와의 상관계수를 비교해보면, 중간가족과 부적응가족의 남자 청소년들에서 학교생활적응과 외현화 행동문제의 부적 상관관계가 적응가족일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자 청소년은 가족이 기능적이지 못할 때, 학교생활적응과 외현화 행동문제의 관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적응과 내재화 행동문제와의 상관계수가 가족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가족과 부적응가족의 여자 청소년들에서 학교생활적응과 내재화 행동문제의 부적 상관관계가 적응가족일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은 가족이 기능적이지 못할 때, 학교생활적응과 내재화 행동문제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의 기능성이 낮을 경우 학교생활적응의 문제는 남자 청소년의 외현화 행동문제, 여자 청소년의 내재화 행동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청소년 행동문제의 차이를 살펴보고, 가족체계유형과 학교생활적응 및 행동문제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내재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른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문제의 차이는 남녀의 사회적 역할 차이 및 사회화의 차이, 즉 성역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송명자, 1995; Liu & Kaplan, 1999; 서찬란, 2005 재인용). 즉,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밖으로 표출되

는 행동에 대해 규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내재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나타낸다는 것이다.

둘째,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남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부적응가족 집단의 청소년이 가장 낮은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나타냈고, 적응가족 집단의 청소년이 가장 높은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나타냈다. 따라서, 남녀 청소년 행동문제에 있어서 주요한 환경 변인으로 가정되는 가족체계유형과 학교생활적응은 서로 관련이 있으며, 가족체계가 기능적인 경우 남녀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더 적응을 잘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남녀 청소년의 행동문제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부적응가족 집단의 청소년이 행동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 적응가족 집단의 청소년은 행동문제를 가장 적게 경험하였다. 즉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높은 경우 남녀 청소년의 행동문제가 적게 나타났고,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낮은 경우 행동문제가 더 많이 나타났다.

넷째, 학교생활적응에 따라 남녀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차이가 나타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행동문제가 적게 나타나고,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행동문제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행동문제가 학교활동에서의 실패와 함께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행동(Bower, 1970)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청소년은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통해 공식화된 가치를 습득하고 행동을 수정하며 성장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듭 실패하게 되면 바람직한 행동의 학습과 수정의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학교생활적응에서의 실패는 곧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특성인 행동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다섯째, 남녀 청소년 모두 모든 가족체계유형에서 학교생활적응과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문제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족이 기능적이지 못한 경우 학교생활적응과 외현화 행동문제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더 높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족이 기능적이지 못한 경우 학교생활적응과 내재화 행동문제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더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이 기능적이지 못한 경우 학교생활적

응에 어려움이 생기면 남자 청소년의 외현화 행동문제, 그리고 여자 청소년의 내재화 행동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행동문제를 이해하고 예방, 치료하는 데 성별에 따른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행동문제가 사회적 기대나 규범을 기준으로 측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성에 따른 사회적 기대나 규범, 즉 성역할의 차이에서 성별 행동문제의 차이가 비롯된 것인지를 더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체계유형은 학교생활적응 수준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기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제까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학생상담 및 지도는 청소년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가족체계유형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로 미루어볼 때,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은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가족원의 참여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상담이 개인상담 뿐만이 아니라 가족상담의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식의 개선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높여 가족체계가 높은 수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행동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특히 가정과 교육에서는 가족기능성에 초점을 둔 바람직한 가족관계와 가족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으로 청소년 행동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경우에 청소년의 행동문제가 낮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청소년의 행동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의 학교생활적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학교생활적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족이 기능적이지 못할 때 학교생활적응과 외현화 행동문제의 부적 관련성이 높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족이 기능적이지 못할 때 학교생활적응과 내재화 행동문제의 부적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이 기능적이지 못한 경우에 남자 청소년의 외현화 행동문제, 여자 청소년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감소시키는데 학교생활적응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이 서울 지역의 중학생으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가족기능성에 따른 가족체계유형과 학교생활적응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는 연구와 행동문제를 더 세분화된 유형으로 살펴보는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지은·이소희(1999).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의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4(1), 79-101.

김문정(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주(2002). **중·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래(1993). **학업성적에 대한 기여변인의 영향력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유경(2004). **청소년의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따른 인지적 특성: 비합리적 신념, 자동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윤희(1990). **부부관계, 부모-자녀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자녀 비행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인숙·이경남(2004).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 **한국가정과학회지**, 7(2), 97-113.

김지영(2003).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족기능이 청소년가출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경·이정숙(1993). **문제아 임상심리학**. 서울: 교문사.

노숙영(1998). **중학생의 학교적응, 학업성취, 정서 및 문제행동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은영·윤진(1994). **또래의 수용이 청소년 초기의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1), 44-63.

민하영·이윤주·이영미(2004). **대학생의 내면화 및 외현화된 행동문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대학생활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7-27.

박미정(2003).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소혜(1995). **초등학교 이동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 및 만족도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진(199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가족체계유형과 대학생 적응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찬란(2005). **가족환경요인 및 개인심리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영혜(1992).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안용성(2006). **겉핥하면 싸움·신경질·거짓말...“우리 아이 혹시 우울증?”**. 2006년 9월 6일자 세계일보, 5, 18.

양경수(2002).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아동의 자아개념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1(2), 87-98.

양현아(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혜영(1997). **발달정신병리는 무엇인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1), 115-124.

오치선·오윤선(2001). **가족체계 유형의 청소년 적응 및 학교생활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8(1), 75-98.

윤찬정(1994). **가족의 기능성과 개인의 인성 특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주(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녀(2005). **가족의 구조적 특성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현·민혜영(1992).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6, 215-226.
- 이승신·윤명숙·조인경·김혜경·백영균·최광현·송영갑·민창기(2001).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1**. 서울: 천재교육.
- 이종연·이제신(2000). 괴롭힘 경험을 가진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연구논총**, 4, 47-75.
- 이혜령(2000). **고등학생의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용우(1984).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귀연(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귀연·최보가(1995).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99-113.
- 전명희·양혜원(2001). 아내폭력 노출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 사회복지 연구**, 6, 127-152.
- 정나영(1998). **아동의 행동문제·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 및 적응**.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문자(1988). **유아의 행동문제**. 제 10차 한국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 정옥분(2005).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최경민·한성희(1997). 품행장애 청소년에서의 우울, 불안 증상과 부모양육특성.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8(1), 83-91.
- 최은경·오수성(2006). 보육시설 청소년의 애착유형에 따른 행동문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129-145.
- 홍강의·홍경자(1986).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문제 연구(II). **서울의대 정신의학**, 11(1), 39-47.
- 황혜정(1996). 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의 일관성 연구. **초등교육연구**, 10(1), 29-45.
- Bell, L. G., & Bell, D. C. (1982). Family climate and the family adolescent: Determinants of adolescent functioning. *Family Process*, 31, 519-427.
- Bower, E. M. (1970). *Early identifications of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 in school(2nd Ed.)*.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 Eric, J. M., & Russell, A. B. (1996). *Child psychopathology(Eds.)*. NY: Guilford Press.
- Handel, G. (1965). Psychological study of whole families. *Psychological Bulletin*, 63, 19-41.
- Kathleen, L. A., & Brommel, B. J. (1986).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2nd Eds.)*. Illinois: Scott, Foresman and Company.
- Olson, D. H. (1991). Commentary: Three-Dimensional(3-D) Circumplex Model and revised scoring of FACES III. *Family Process*, 30, 74-79.
- Olson, D. H., & Barnes, H. L.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 The Circumplex Model. *Family process*, 56, 438-447.
- Olson, D. H., Porter, J., & Lavee, Y. (1985). *FACES III.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Olson, D. H., Russel, C. S., & Sprenkle, D. H.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9, 3-28.
- Olson, D. H., Russe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IV.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Rodick, J. D., Henggler, S. W., & Hanson, C. L. (1986). An evaluation scales(FACES) and the Circumplex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 77-87.
- Thomas, V. K., & Olson, D. H. (1993). Problem Families and the Circumplex Model: Observational Assessment Using the Clinical Rating Scale(CRS). *Journal of material and family therapy*, 19(2), 159.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청소년 행동문제의 차이를 살펴보고, 가족체계유형과 학교생활적응 및 행동문제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가족체계유형 분류를 위한 가족기능성, 학교생활적응, 행동문제의 척도를 구성하고, 서울시 중학생 1,4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1,382부(남학생 747명, 여학생 635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내재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남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부적응가족 집단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가장 낮았고, 적응가족 집단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가장 높았다.

셋째,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남녀 청소년의 행동문제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부적응가족 집단의 청소년이 행동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 적응가족 집단의 청소년은 행동문제를 가장 적게 경험하였다.

넷째, 학교생활적응에 따라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행동문제를 적게 경험하고,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행동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다섯째, 남녀 청소년 모두 모든 가족체계유형에서 학교생활적응과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문제 간에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족이 기능적이지 못할 때 학교생활적응과 외현화 행동문제의 부적 관련성이 높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족이 기능적이지 못할 때 학교생활적응과 내재화 행동문제의 부적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논문접수일자: 2008년 3월 28일, 논문심사일자: 2008년 3월 31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12월 12일